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를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주체106(2017)년 7월 28일 밤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현지에 나오시여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를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준비기간 매일매일 그 정형을 보고받으시고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으며 발사 당일 밤에는 로켓시험발사장에 직접 나오시여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발사 명령을 내리시자 영웅조선의 무진막강한 힘을 재운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이 대지를 박차고 장쾌한 불줄기로 어둠의 장막을 밀어내며 우주만리로 단숨에 솟구쳐올랐다.

우리 나라 서북부지대에서 발사된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은 최대 정점고도 3, 724. 9km까지 상승하며 거리 998km를 47분 12초간 비행하여 공해상의 설정된 수역에 정확히 탄착되였다.

이번 시험발사는 최대사거리를 모의하여 최대고각발사체제로 진행하였으며 주변국가들의 안전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대성공을 이룩한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 결과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로켓연구부문 과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을 높이 평가하시고 당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특별감사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이번 시험발사를 통하여 대륙간탄도로켓체제의 믿음성이 재확증되고 임의의 지역과 장소에서 임의의 시간에 대륙간탄도로켓을 기습 발사할수 있는 능력이 과시되였으며 미

본토전역이 우리의 사정권안에 있다는것이 뚜렷이 입증되였다고 긍지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오늘 우리가 굳이 대륙간탄도로켓의 최대사거리모의시험발사를 진행한것은 최근 분별을 잃고 객적은 나발을 불어대는 미국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해서이라고 하시면서 이 정도면 미국의 정책립안자들이 우리 국가를 감히 건드리려는 날에는 미국이라는 침략국가도 무사할수 없으리라는 것을 제대로 리해하였을것이라고 말씀하

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 국가를 상대로 한 미국의 회피운 전쟁나팔이나 극단적인 제재위협은 우리를 더욱 각성분발시키고 핵무기보유 명분만 더해주고있다고 하시면서 미제야수들에 의하여 이 땅에서 참혹한 전란을 겪어본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국가방위를 위한 강위력한 전쟁억제력은 필수불가결의 전략적선택이며 그 무엇으로써도 되돌려세울수 없고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귀중한 전략자산이라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미국놈들이 우리의 거둬드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또다시 구린내나는 상통을 들이밀고 핵방망이를 휘두르며 얼빠진 장난질을 해댄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차근차

근 보여준 핵전략무력으로 툭툭히 버릇을 가르쳐줄것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여 주체의 핵강국, 세계적인 로켓맹주국의 자주적존엄과 위용을 다시한번 만방에 과시한 로켓연구부문 과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을 열렬히 축하해주시며 그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고 력사에 길이 남을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 2차 시험 발사 성공을 경축하는 연회 성대히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는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성공을 경축하여 7월 30일 목란관에서 성대한 연회를 마련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연회에 참석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리설주동지와 함께 연회장에 도착하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연회참가자들은 주체적로켓공업의 개척자이시며 건설자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핵무력건설대업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 백두산대국의 존엄과 국력을 만천하에 떨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선로동당의

병진로선을 높이 추켜들고 전략적핵무력 강화의 성스러운 길에서 혁혁한 위훈을 세움으로써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최후 승리의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고 미제를 비롯한 온갖 적대세력들에게 철퇴를 안긴 로켓개발자들에게 뜨거운 전투적답례를 보내시였다.

연회에서는 애국가가 주악되였다. 리만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축하연설이 있었다.

불과 20여일만에 대륙간탄도로켓의 장쾌한 불뢰성을 또다시 터친것은 위대한 김정은시대에 눈부시게 비약하는 주체적로켓공업의 발전속도와 막강한 잠재력, 영웅조선의 불패의 기상을 웅변으로 실증한 세계적사변이라고 강조하였다.

연설자는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위임에 따라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단행하여 주체의

핵강국, 세계적인 군사대국의 자주적존엄과 위용을 다시한번 만방에 과시한 국방과학전사들을 열렬히 축하하였다.

그는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의 대성공은 전적으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천재적인 예지와 담대한 배짱, 특출한 령도실력이 안아온 또 하나의 민족사적패승이라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온 나라가 대륙간탄도로켓보유를 경축하여 만세를 부르던 그 시각에도 미국놈들의 숨통을 더 바짝 조일 전략적결단을 내리시고 《7.4혁명》을 안아온 그 기세, 그 정신으로 련속공격하여 더 큰 승리를 쟁취하도록 국방과학전사들을 손잡아 이끌어주시는데 대하여 그는 말하였다.

연설자는 국방과학전사들의 열화같은 충정의 마음을 담아 로켓개발집단의 위대한 스승, 친아버지가 되시여 걸음걸

음 가르쳐주시고 따듯이 보살펴주시며 세계적인 대성공, 대승리에로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다함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리였다.

그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령도밑에 《3.18혁명》과 《7.4혁명》을 거쳐 7.28의 기적적승리를 창조한 기세드높이 기동성과 타격력이 높은 새형의 탄도로켓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며 공중과 해상, 수중의 모든 공간에서 세계를 압도할수 있는 국방과학연구소과들을 련발적으로 이룩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연회참가자들은 우리 공화국 핵무력의 총사령관이시고 사회주의승리의 위대한 기치이시며 우리의 운명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안녕을 축원하여 잔을 들였다.

본사기자